

정답 나형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③	①	①	④	④	③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④	②	①	④	②	②	③

해설

- 정답: ③

해설:  
다음 시가는 유리왕의 '황조가'이다.

③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왕은 유리왕이다.

① 진대법 실시는 고국천왕 집권기 정책이다.

② 낙랑군 축출은 미천왕 집권시기의 사건이다.

④ 소수림왕 때 율령을 반포 하였다.
- 정답: ②

해설:  
주세붕은 안향을 배항하기위해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고, 후에 이황은 명종에게 건의하여 소수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② 원간섭기 시기인 충렬와 집권기 때 안향은 최초로 성리학을 고려에 소개하였다.

① 해주향약은 율곡 이이가 보급하였다.

③ 성학십도는 퇴계 이황이 저술하였다.

④ 세종 때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는 이후 성종의 명으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 정답: ③

해설: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세조가 만든 것으로, 고려 원간섭기 때 만든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아 만든 것이다.

③ 6조직계제는 태종 때 실시되었다가 후에 세조 때 재실시한 정치제도이다.

① 동국병감은 문종 때 김종서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전쟁 역사서이다.

② 역대 시문을 모아 서거정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동문선은 성종때 편찬한 문집이다.

④ 정종 때 개경으로 천도하였다가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건립한 궁궐이 창덕궁이다.
- 정답: ①

해설:  
일종의 천거제도인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던 인물은 중종 집권기 때의 조광조이다.

① 위훈삭제를 주장하였던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는

훈구파의 공격을 받아 기묘사화로 인해 탄압을 받았다.

② 초기 사림파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가 연산군 때 '무오사화'로 공격을 당하였다.

③ 명종이 어린나이에 왕으로 등극하자 명종의 생모인 문정왕후를 지지하는 외척세력인 윤원형을 비롯한 소운파는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하였다.

④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는 성종 때 폐비된 인물이다. 조광조는 중종반정이후 조정에 출사한 인물로 폐비 윤씨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

- 정답: ①

해설:  
ㄱ, ㄴ 은 신석기 유적지와 신석기 유물로 옳다.  
ㄷ의 공주 석장리 유적지는 구석기 유적지 이고 미송리 석 토기는 청동기 유물이다.  
ㄹ의 부산 동삼동 유적지는 신석기 유적지이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구석기 유물이다.
- 정답: ④

해설:  
(가) 이전의 사건으로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으로 백제의 개로왕이 죽은 이후, 문주왕은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였다.(475년)  
(가) 이후의 사건으로 백제의 성왕은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천도하였다.(538년)  
따라서 5세기 문주왕과 6세기 성왕 사이를 묻는 문제이다.

④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한 왕은 신라의 법흥왕이다. (527년)

① 대가야를 정복한 신라의 왕은 진흥왕이다.(562)  
진흥왕은 성왕을 죽이고 한강유역을 완벽히 장악한 후에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② 황초령비는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이다.(568년)  
진흥왕은 성왕을 죽이고 한강유역을 완벽히 장악한 후에 함경도로 진출하였다.

③ 진흥왕 때 거칠부는 왕명으로 '국사'를 편찬하였다.(545년)
- 정답: ④

해설:  
④ 중강개시와 책문후시는 조선 후기의 청나라와의 무역과 관련된 무역이다.

- 정답: ③

해설:

ㄹ. 조선왕조 실록은 승정원 일기, 관청 업무 일지인 시정기, 사관이 기록한 사초 등을 기초로하여 편찬한 역사서이다. 지문에 나온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뽑아 만든 사서는 '국조보감'으로 실록과 상관이 없다. 또한 국조보감을 실록으로 이해하였다 하여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가 승정원 일기가 아니라, 승정원 일기에서 뽑아 만든 사서가 조선왕조 실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9. 정답: ④

해설:

발해는 고왕 대조영이 동모산에 자리를 잡고 건국한 국가로 ㉠이 최초의 수도가 된다. 이후 천도한 중경은 ㉡이 되고, 문왕 때 천도한 상경이 ㉢, 다시 천도한 동경이 ㉣이 된다.

㉠ : 정효공주 무덤은 중경에 있으므로 ㉡에 위치한다.

㉡ : 용두산 고분군은 정효공주 무덤이다. 정효공주 무덤은 중경에 있으므로 ㉡이 맞다.

㉢ :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만든 상경성은 상경에 있는 성이므로 ㉢이 맞다.

㉣ : 정해공주 무덤은 동모산에 위치한 무덤으로 ㉠에 위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10. 정답: ①

해설:

다음 상소문은 최승로의 '시무28'의 내용으로 유교를 중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상소문은 최승로가 성종에게 건의한 상소문이다.

① 개경, 서경과 12목에 물가조절기관인 상평창을 설치한 왕은 성종이다.

② 광종 때 균여를 귀법사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하였다.

③ 관학진흥책으로 예종은 국자감에 7재를 두었다.

④ 경정 전시과는 문종 때 실시한 토지제도이다.

11. 정답: ④

해설:

④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은 박정희의 군정 때 시작되었다. 후에 2,3,4차 계획까지 모두 박정희 정부 때 실시되었다.

① 한미 원조 협정은 1948년 체결된 협정으로 이승만 정부 때 맺은 조약이다.

② 농지개혁은 1949년 6월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실시된 정책으로 이승만 정부 시기의 정책이다.

③ 삼백산업은 50년대 소비재 중심의 산업으로 이승만

정부 시기의 경제 정책이다.

12. 정답: ③

1937년 중일 전쟁이후에 민족말살 정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일왕을 향하여 고개숙여 절을 하는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 암송 등이 있다. 또한 소학교의 명칭을 1941년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③ 남면북양정책은 1930년대 초반에 시작한 공업자원 확보 정책이다.

13. 정답: ②

해설:

밀줄 친 조약은 1882년 서양국가와 조선과 최초로 맺은 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이 조약에는 거중조정의 내용이 담겨있어 을사조약을 맺을 당시 조선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 조약에는 치외법권의 일종으로 영사재판권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최혜국 대우가 최초로 포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1880년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연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조선책략'을 들여와 큰 파장을 일으켰다.

② 임오군란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는 말은 틀린 지문이다.

14. 정답: ④

해설:

ㄱ. 부호장 이하의 향리 임명권은 사심관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ㄴ. 상층 향리는 과거시험을 통해 문벌 귀족을 이루기도 하였다.

ㄷ. 지방 호족출신이었던 향리의 자제들은 기인제도에 의하여 수도인 개경으로 인질로 보내졌다.

ㄹ. 고려 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속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향리가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15. 정답: ②

해설:

'이 농법'은 이양법(모내기법)으로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농법이다. 사실 이양법은 고려 후기에 일부지방에서 실시되었고 조선 초 편찬한 농서인 농사직설에도 소개가 되어있다. 이는 기존의 농법인 직파법에 비하여 잡초를 뽑는 노동력이 절감되어 혁신적인 농법이었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 공급 문제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다가 조선 후기 수리시설이 발달하여 전국

적으로 확산되었다.

ㄴ. 고랑에 작물은 심는 것은 발농사와 관련된 농법으로 이앙법과 관련이 없다.

ㄷ. 수령7사에는 농사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이앙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6. 정답: ①

해설:

밑줄 친 '헌법'은 긴급조치라는 키워드를 통해 '유신헌법'임을 알 수 있다. 유신헌법은 1972년 12월 통과된 헌법이다.

- ① 부마 항쟁은 1979년 박정희 정부 말기의 민주화 항쟁으로 이 사건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다.
- ② 국민 교육헌장은 1968년에 선포하였다.
- ③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에 발표되었다.
- ④ 6.3 시위는 1964년 일어난 사건이다.

17. 정답: ③

해설:

밑줄 친 회의는 1923년 '국민대표회의'이다. 이회의는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가 위기를 겪자 앞으로 임시정부가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한 회의이다.

- ④ 국민대표회의에서는 임시정부 해체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한 창조파와,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자는 개조파, 그리고 현상유지파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끝내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 ① 임시정부 건국강령은 1941년 선포되었다.
- ② 박은식은 1925년 이승만이 임시 의정원에서 탄핵당하면서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 ③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혁명당이 참가하여 만든 새로운 단체는 1935년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만든 민족혁명당이다.

18. 정답: ②

해설:

다음 법령은 1912년 발표된 '토지조사령'이다.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침탈 정책이다.

- ② 일제는 토지 조사사업을 통해 기존 농민들의 관습적 경작권을 부정하였고 역둔토, 공장토 등의 국유지를 총독부 소유로 편입시켰다.
- ①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주무 기관이었다.
- ③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양척식회사는 1910년 임시 토지조사국이 설립되기 이전인 1908년에 설립된 회사이다.
- ④ 출궁퇴치, 농가부채 근절은 일제의 1930년대 시행된

농촌 진흥운동에 따라 실시되었다.

19. 정답: ②

해설:

②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 청나라 상인의 무역비중이 높아지기는 하나, 일본과의 무역량을 앞지르지는 못하였다.

20. 정답: ③

해설:

역에 관한 세금제도로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사람마다 바치게' 하는 세금 제도는 흥선대원군이 시행한 호포법이다. 밑줄 친 '그'는 흥선대원군이다.

- ③ 임오군란 직후 흥선대원군은 일시 재집권하여 개화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5군영을 부활시켰다.
- ① 송시열에 대한 설명이다.
- ② 1차 갑오개혁을 주도하였던 군국기무처의 총재는 김홍집이다.
- ④ 만기요람은 순조 때 편찬되었다.

**총평**

난이도

- 매우어려웠다.     다소어려웠다.     평이했다.
- 다소쉬웠다.     매우쉬웠다.

총평

매년 수험생을 괴롭히던 소위 '틀리라고 낸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지엽적인 암기를 요하는 지문을 섞어 놓아 공무원 한국사 회독 수가 많지 않은 수험생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공무원 한국사답게 20문제 중 14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춰야 하는 문제로 구성이 되었고 학생들이 까다로워 하거나 당황할 만한 문제는 4~5문제 정도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번 문제는 국문학 문제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지 않은 학생들은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기출문제 풀이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수험법을 검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는 암기를 요하는 문제로 공부의 어느정도 되어 있는 수험생일지라도 순간 당황시킬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의 최고난도 문제는 9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였을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발해 문왕의 두 딸의 고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위치까지 완벽히 암기한 학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발해의 수도 이동 과정을 알고 있더라도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17번 문제와 19번 문제도 쉽지 않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2021년도 국가직 시험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